

오피니언

다산포럼

최일남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지하철 창구 앞에 서 갑자기 멧적은 느낌이 드는 수가 있다.

대여섯 노년 이 한꺼번에 물러 손을 내밀 때는 더구나 미망하다. 창구 직원과 눈을 맞추는 순간의 기분이 영 어둡다.

거듭 공정한 자격지심이다. 무표정하게 건넌 표패기를 집어 들면 끝날 일이라니와, 간간한 직원은 증명거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서운하고 한문 즐겨왔다. 하필이면 그날 집에 두고 온 '경로우대증' 생각이 간절하고, 칠십을 지나도 한참 지난 쭉그런진 모과상을 만 65세 미만으로 보아 준 '배려'가 고마웠다.

는 평평으로 전국에 확산시킨 양, 노인들의 지하철 혜택이 이래저래 크다. 매우 커미안할 지경인데, 출산을 1·08명의 충격에 대면 지극히 한가한 화제다.

까. 그때마다 대두되는 문제가 고령자층을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다. 때문에 생김질 모를 세대 갈등을 미리 걱정한다.

저 떡을 묶은 갖고 태어난다는 말로 길긴 가난 속 다산(多産)을 억지로 자위했던 사회다. 하다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노래를 역세게 불렀다.

평균 수명 연장은 생활의 질이 나아지면서 생긴 건강 제일주의 덕이지만, 그전에 이미 드셨던 조로증 타파의 사회적 공감대를 부인하기 어렵다.

늙어서 미안하다

다소 완만할 뿐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듣는다.

'상팔십(上八十)이 내 팔자'라는 속담이 있다. 가난한 것이 제 팔자라는 뜻이다.

반드시 이만한 옛이야기에 빚낸 유세 부리기는 아닐 망정 오늘의 노년은 내남 없이 지독한 풍파를 겪었다.

죽을 고비 속에서 오히려 삶을 갈망한 사례를 들어 일상에 변진 그들의 약한 내

구성(耐久性)을 닦한다.

그건 그것대로 싫다. 좋은 육자배기도 한두 번이라는 이치를 떠나 시대 시대의 고통을 양단간에 하나로 뭉뚱거리면 곤란하다.

그래서도 '1·08 쇼크'로 한참 먹은 가슴이 아직 얼얼하다면, 호박죽에 옹술 한따저 없는 늙은이의 업살로 칠 것인가.

아들의 지게에 앉아 고려장을 거면서, 자식의 안전한 귀로를 위해 나뭇가지를 툭툭 꺾던 전설의 어머니 흉내는 언감생심이다.

아들의 지게에 앉아 고려장을 거면서, 자식의 안전한 귀로를 위해 나뭇가지를 툭툭 꺾던 전설의 어머니 흉내는 언감생심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징벌적 상속·증여세 다시 생각할 때다

신세계 그룹이 "깜짝놀랄 만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뗏뗏하게 경영권을 승계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잇따라 경영권 승계 편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들은 재벌들의 상속·증여세 납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율의 상속·증여세 하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세금 납부에 대비해 가능한 현금배당을 늘리거나 비상장 자회사 등을 활용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편법 등이 고작이다.

징벌적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세계 개편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재벌들의 상속·증여세 납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율의 상속·증여세 하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소르본느大學의 몰락 시사하는 바 크다

지난주 뉴욕타임스는 파리 10대학의 실태를 특집으로 보도했다. 낭테르에 있는 파리 10대학은 학생수가 3만2천명이나 되는데도 서점이 하나도 없다.

소르본느 대학의 몰락은 과연 프랑스만의 고민일까.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의 흥기삼 총장이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을 그대로 두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대학들이 처한 상황을 절박하게 설명해준다.

통칭 소르본느 대학으로(정확히는 파리 4대학) 불리는 파리국립대학은 이 밖에도 '유령학생' 문제가 심각하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오늘날 지구촌

에서 대학은 단순한 지식전수의 장을 넘어 그 대학이 속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거점이 된 지 오래다.

대학은 엘리트를 양성하는 곳이다. 실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오늘날 지구촌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오늘날 지구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박경순

국립 5·18민주묘지의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고 처음 맞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5·18보상법, 학살자처벌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 제도적으로 그 명예를 회복하는 물론, 학살책임자를 단죄하고 그 공훈으로 받은 서훈까지 타탈하는 과거청산도 이루어졌다.

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국립 5·18민주묘지는 희생자들의 정신과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만나는 곳이다.

따라서 묘지는 살아있는 삶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사 람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유형의 5·18 기념공간에 대해 문 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억의 해법과 기념사업

계 선함을 제공하는 민주, 인권, 평화의 상징도시가 되었다. 분명 그 상징성은 광주의 자긍심이며 동시에 큰 자선이 아닐 수 없다.

참여형, 진행형의 기념사업을 통해 역사 의 위안집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 삶에 늘 작용하는 살아있는 5·18민주화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유형의 5·18 기념공간에 대해 문 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5·18문제 해결 과정, 특히 정부가 주도한 유형적 기념사업의 대부분이 '기억의 해법'이 아닌 '망각의 해법'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권위적이고 전시적이며 완결적인 정부 주도의 기념사업이 갖는 한계가 그 대표적이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며, 충분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유형적 기념사업이 잘못되었다면 이제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며, 그 일환으로 열려 있는 공간, 참여 가능한 기념 공간으로의 국립 5·18 민주묘지로 발전시키는 데 광주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립 5·18민주묘지의 관리소장을 맡 으면서 묘지가 더 이상 의례(儀禮)의 공간, 유공자들만의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묘지일 때 이 곳에 영면해 있는 유공자들의 유훈 과 정신이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으며, 그 유훈과 정신이 우리 사회의 민주발

지방선거 날짜, 농사철과 겹치지 않았으면...

최근 농촌은 마을 사람들이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지원한다며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까지 불렀다고 한다.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1만1천 여명에 달한다고 들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7천여명 정도가 출마 예상자라는데, 이들이 시골지역 표를 위해 일꾼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이제 18일부터 진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그때는 아예 사람 구할 생각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하니 걱정스럽다. 유급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일당은 선

거사무원의 경우 3만원~5만원. 여기에 교통비와 밥값이 각각 2만원에 달해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괜찮은 일거리로 알려져 있다.

농촌에서 5월과 6월 초 사이 모내기철은 가장 바쁜 시기다.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이나 일손이 없는 농민 얼굴 주름살만 늘 것 같다.

지방 선거가 일손 부족 등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선거부터 선거 시기를 조정해 줬으면 한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야생 일본원숭이



비가 내리는 어느날 소문만 믿고 해남의 흑석산에 있는 야생원숭이 실체를 확인하러 갔다.

산에 오르기 전 휴양림에서 그간 원숭이의 행적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다.

이 곳에 출현한 지 5년 정도 됐고 처음 세 마리였는데 나중에 수컷으로 보이는 두 마리는 갑자기 행방을 감춘 지 2년 정도 됐다는 것이다.

또 주로 거주하는 곳은 산꼭대기지만 첫 등산객을 따라 가끔씩 내려오기도 하는데 여름엔 물이 많은 이곳 휴양림에서 아예 살다 시피 한다고 들었다.

미리 준비해 간 견뎌도 나눠주고 배려해준 덕분에 몇 장의 사진도 찍었다.

나중을 어떻게 될지 장담은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야생에서 멋지게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은 작은 친절부터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 정차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이 열리지 않아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에야 내릴 수 있었다.

당시 7살난 딸의 손을 잡고 내리려는데 딸이 버스 계단을 내려서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는 게 아닌가.

너무 놀라 있는 힘껏 버튼을 잡은 채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제서야 버스 문이 다시 열려 딸이 내릴 수 있었지만 딸은 놀란데다 팔이 아프다고 울먹였다.

이런 일을 당하면 누가 버스를 타고 싶을 까. ▲우인순·광주시 북구 회암동

◇ 채택된 원고는 고로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로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직장마다 한국팀 경기는 물론 매 게임 승패나 스코어 구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경우에 코어 알아맞히기 열풍이 일었던 적이 있다.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나름대로 객관적 평가를 기준을 세워 승패를 가늠해보기도 했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정보까지 수집, 모미를 즐겼다.

월드컵과 베팅

한국은 초보적 수준일 뿐, 사실 월드컵만 열리면 유럽 등 전세계가 베팅열기에 휩싸인다.

세계적인 도박업체들이 이번 월드컵 특수에 또 군침을 흘리고 있다. 베팅업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재경비하는 등 손넌 밤을 준비로 분주하다.

단순한 승패맞히기에서부터 스코어

차이, 모든 경기마다 MVP맞히기 등 축구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돈을 걸도록 했다. 따라서 첫골이 나오는 시간대·코너킥 숫자 맞히기는 물론 경기는 몇 명이 받을지까지도 베팅의 대상으로 내놓고 있다.

이같은 도박열기때문에 월드컵 기간에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 승부의 중심에 있는 심판들이다. 도박업체와 결탁을 막기 위해 이번에도 주심 23명은 프랑크푸르트의 모처에 격리수용(?)된다.

특히 온라인 선진국, 한국의 축구팬들도 세계적인 도박업체들의 물줄은 손넌으로 끊히고 있는데 그들의 발이 되지 않으려면 베팅의 상식정도는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단순히 수확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달려드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성공적 베팅을 위해서는 각 팀 선수들의 열정과 자신감, 동기부여, 행운의 찬스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베팅도사들의 주문이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hh@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